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대한민국 유일의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경제·경영 전문지

CEO 인터뷰

김동연 (주)동신툴피아 대표이사

고객존중 경영 통해 공구 유통의 대부로 '우뚛'



공구에 관한 모든 것, ㈜동신툴피아
동신툴피아는 공구 유통 업체로
국내외 산업공구 700여 브랜드
25만여 종을 취급한다.
사진 속 제품은 강력한 파워모터에
컴팩트한 크기로 디자인과 성능에 있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용 공구로 평가
받고 있는 워크^{WORK} 브랜드 제품이다.

April

Vol
205

2022

SPECIAL THEME

폭등하는 유가,
국내 경제 적신호

P.04

ESG ACADEMY

기업의 지속 가능 전략을
지원하는 SLL

P.22

IBK ISSUE

기업승계,
지속 가능한 성장 이끈다

P.32

COMPANY SOLUTION

공휴일의 민간 확대
적용에 따른 대처 방안

P.46

CONTENTS

2022. April. Vol_205

발행일 2022년 4월 1일(통권 제205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윤종원
편집인 조봉현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7)
Tel 02-729-6520
Fax 0505-077-0850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디자인·제작 한국경제매거진㈜
인쇄소 (주)교학사
문의 02-360-4816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01_시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기업 피해 최소화

02_COMPANY POLICY

중소기업의 혁신 전환을 지원합니다
구조혁신 지원사업



04 Special Theme

폭등하는 유가, 국내 경제 적신호

- ① 국제유가, 어디까지 치솟을 것인가?
- ② 오일쇼크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③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한
중소기업의 민첩한 전환 노력 필요



16 CEO Strategy

김동연 (주)동신토피아 대표이사
고객존중 경영 통해
공구 유통의 대부로 '우뚱'

28 Venture Biz

IBK창공인 ❶ ㈜아이코어 박철우 대표

IBK창공인 ❷ 클린사이언스 박순복 대표



22_ESG ACADEMY

기업의 지속 가능 전략을 지원하는 SLL

26_IBK EXPLORING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30_COMPANY CHALLENGE

소비자의 절반, 여심을 잡아라

32_IBK ISSUE

기업승계, 지속 가능한 성장 이끈다

34_TRADE GUIDE

경제협력체계 강화 기대되는 호주

36_POLICAST

플랫폼의 통합·연계가 필요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38_ECONOMIC REVIEW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42_INDUSTRIAL ESTATE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비상 채비 갖추는 기계 산업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46_COMPANY SOLUTION

공휴일의 민간 확대 적용에 따른 대처 방안

48_TAX FOCUS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대손세액공제

50_CEO OPINION

진정한 선진국 되려면
기업가 정신 확산과 기술독립 필요

52_IBK POLICY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

시론



IBK경제연구소 소장

부행장 조봉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기업 피해 최소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쟁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원자재 공급망 차질, 유가 및 물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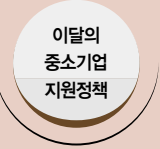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대(對)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내 수출입 물류, 원자재, 대금 결제 등에서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선제적 피해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기업의 75%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로 사항으로는 대금 결제 차질(46.0%)이 가장 높았고, 물류 애로(29.3%), 수출 계약 중단(25.7%) 등이 뒤를 이었다. 유연탄, 목재, 니켈 등 원자재의 물류 대란 및 가격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공장이 멈추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제공, 대출 만기 연장,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 외에도 물류 차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물류 바우처 트랙을 신설해 지원하고, 대체 수출처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가동 중이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었던 것은 수출의 영향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수출 기업마저 어려워진다면 국내 경제가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정부와 지원기관들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금융 지원, 대금 결제, 공급망 안정화, 거래처 전환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야 한다. 현장에서 그 해법을 찾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Company POLICY



중소기업의 혁신 전환을 지원합니다

구조혁신 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팬데믹 시대에 기업의 혁신과 변화는 필수다. 사업 전환^{BT}, 노동 전환 고용안정^{LT}, 디지털 전환^{DT} 3개 분야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01

구조혁신 지원사업이란?

신산업으로의 사업 전환,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공정한 노동 전환 고용안정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BT

사업 전환 Business Transformation
업종 전환 및 추가

LT

노동 전환 고용안정 Labor Transformation
노사 협력 체계 및 직무 전환 훈련

DT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경영관리, 생산현장의 스마트화

02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대상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업 전환, 노동 전환 고용안정,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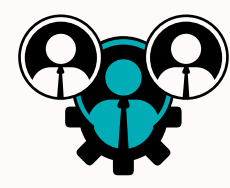
지원 규모

진단 800개사, 컨설팅 1,100개사

* 진단, 컨설팅에 대한 기업 부담금 없음

03

지원 내용



구조혁신 유형별(사업 전환, 노동 전환 고용안정, 디지털 전환) 전문가를 활용해 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진단

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의 현 수준을 진단, 컨설팅 방향을 제시

컨설팅

사업 전환, 노동 전환 고용안정,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법인과 연계해 심층 컨설팅 지원

구분	분야별 세부 내용
사업 전환	기업 역량 및 재무 진단, 사업모델 전환, 원가·물류 프로세스 혁신 등
노동 전환 고용안정	경영 및 생산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및 효율화, 노사관계 등
디지털 전환	디지털화 수준 및 내부 역량 강화, 단계별 개선 전략 및 실행 과제 제안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별 사업 연계

구분	연계 지원 세부 내용
사업 전환 추진 기업	·사업 전환 계획 승인 및 사업 전환 자금 융자 ·정부 지원사업 가점 연계 (연구·개발 ^{R&D} , 스마트 공장, 공공임차 등)
노동 전환 고용안정 추진 기업	·사업 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노동 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디지털 전환 추진 기업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 ·위기 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04

사업 진행 절차



1 신청 및 자가진단

신청 → 구조혁신 자가진단 → 지원 센터 및 전문가 배정

2 구조혁신 진단

구조혁신 진단 → 결과 분석 → 컨설팅 신청 → 요건 검토

3 구조혁신 컨설팅

컨설턴트 배정 및 계획 수립 → 구조혁신 컨설팅 실시 → 구조혁신 로드맵 수립

4 분야별 연계 지원

예) 사업 전환 지원 제도, 노동 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05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 홈페이지(3t.kosmes.or.kr)를 통해 신청

신청 기간

2022년 2월 16일(수) ~ 12월 31일(토)

☒ 예산 소진 시까지

폭등하는 유가, 국내 경제 적신호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 요소가 계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국내 실물경제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다.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경우 제3의 오일쇼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유가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들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해본다.

2 올해 국제유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유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브렌트유 가격이 상반기 75달러, 하반기 8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했으며, UBS도 하반기 브렌트유 가격을 75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은행^{IB} 파이퍼 샌들리의 애널리스트도 연내 100달러 돌파를 점쳤다.

3 미 EIA, 올해 평균 유가 배럴당 100달러 넘을 것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EIA는 국제 원유 가격 등을 포함한 단기 에너지 전망을 매월 발표하는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반영해 전월 예측한 유가보다 배럴당 20달러 넘게 상향 조정했다. EIA가 발표한 3월 단기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의 올해 평균 가격은 각각 배럴당 101.17달러와 105.22달러로 예측되었다. 다만 올해 2분기 이후 내년 말까지는 세계 원유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2위 수출국으로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세계 석유 수요는 하루 1억 배럴에 달한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어 영국과 유럽연합^{EU}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기관별 올해 국제유가 전망치



단위 배럴당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EIA 3월 유가 전망치

구분		WTI		브렌트유	
		당월	전월	당월	전월
분기별	2022년 1분기	96.85	85.04	101.08	88.13
	2022년 2분기	111.97	83.63	115.97	86.97
	2022년 3분기	102.94	77.98	106.94	81.64
	2022년 4분기	92.95	70.98	96.95	74.98
연도별	2022년	101.17	79.35	105.22	82.87

단위 배럴당 달러 자료 대한석유협회

세계 10대 원유 생산국

- 러시아 11.6
- 사우디 9.6
- 캐나다 5.7
- 중국 4.9
- 이라크 4.2
- 브라질 3.7
- 아랍에미리트^{UAE} 2.8
- 쿠웨이트 2.5
- 이란 2.5

단위 %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미국
20.5

- ① 세계 원유 수요 양호하지만, 고유가 당분간 지속
② 향후 수년간 수급 불안정으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



김희진 국제금융센터 종합분석실 책임연구원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원자재 시장을 담당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원자재 시장 분석 및 전망,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이다.

국제유가, 어디까지 치솟을 것인가?

국제유가가 그 끝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시작된 위기 상황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이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간 세계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앞으로 우리는 계속 고유가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일까?



2,000원 넘어선 휘발유값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2,052.09원으로 9년 만에 2,000원을 넘어섰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유소에서 고객 이 기름을 넣고 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3월 8일 배럴당 127.9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7일에는 장중 139.13달러까지 치솟으며 역사상 고점인 2008년 7월(147.50달러)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국제유가 2008년 여름 이후 최고치

사실 100달러가 넘는 세 자릿수 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일견 예상된 시나리오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인 쇼티지^{Shortage} 상황이

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국들의 이동 제한 조치, 공장 가동 중단, 설비투자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물류에 차질이 생기고 운송비가 급등하는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된 결과다.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조 강화에 따른 탈탄소화 움직임으로 석유 업계가 몇 년 전부터 석유 탐사·개발^{Upstream} 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자본 지출을 대폭 줄인 탓도 크다. 세계 1위 생산국인 미국은 민간 부문이 석유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노동력 및 설비 부족으로 예전처럼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팬데믹 이전 일일 1,300만 배럴에서 현재 1,100만 배럴 내외로 수개월째 정체 중이며,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증산을 요구했으나 민간 기업들은 탈탄소화를 위해 화석연료 사업을 축소한 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즉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산유국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뿐이다. 이들이 30일 이내 생산을 개시하고 90일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여유생산능력은 약 200만 배럴로 이번 러시아 수출감소분(약 300만 배럴 추정)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

이란 핵협정 타결은 요원해 보이고, 대베네수엘라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하지 않다. 시장은 그나마 3월 1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6,0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IEA 전체 회원국 비축분(15억 배럴)의 4%로, 30일간 일일 200만 배럴을 방출한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1991년, 2005년, 2011년에 이어 역사상 네 번째 방출이다. 그러나 IEA의 발표 당일 국제유가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는데, 시장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유가 당분간 지속,

일각에서는 150달러 이상도 전망

러시아는 세계 3위 석유 생산국으로, 일일 500만 배럴의 원유와 일일 285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세계 공급의 12%, 세계 수요의 8%를 담당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석유의 약 60%는 유럽으로, 20%는 중국으로 향한다. IE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전체 석유 수입량 중에서 러시아산 비중은 9%, 석유 제품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글로벌 공조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전면 차단될 경우 유가는 1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러시아 금수조치로 약 500만 배럴 이상의 공급이 줄면 유가는 최대 2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Nomura}증권은 러시아가 중국 및 일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만 석유를 공급하게 되면 유가는 140~1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두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기피하는 와중에도 중국, 인도, 이란 등은 여전히 러시아산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전망으로 파악된다.

3월 전망에서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올 평균 브렌트유 전망치를 배럴당 105.22달러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전망치를 101.17달러로 한 달 전 대비 약 27% 상향 조정했다. 보수적

으로 전망하는 EIA조차 연평균 유가를 세 자릿수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 차질과 러시아 추가 제재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지 상황과 대러시아 제재 수위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여유생산능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수요 파괴^{Demand Destruction}만이 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제3차 오일쇼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팬데믹 장기화로 이미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 여건이 악화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질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 유로존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물가는 올해 안에 최대 8%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73년, 1979년에 이어 세 번째 오일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OPEC 사무총장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에너지 포럼 세라위크^{CERAWeek}(3.7~3.11일)에서 1960년대 OPEC 설립 이후 7번의 극적인 경기 변화^{Boom-bust} 사이클이 있었으며, 이번 러시아발 수급 위기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석유 기업의 경영진들은 향후 수년간 수급 불안정으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위기가 석유 산업 종말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미 EIA의 2022년
평균 유가 전망치

브렌트유 배럴당



WTI 배럴당



SUMMARY

- ① 석유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국제유가 변동에 매우 민감
 ② 석유화학·철강·자동차 가장 영향 크고, 서비스·건설업 등도 악화 예상



글로벌 시장 뒤흔친 인플레이션 공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유, 천연가스는 물론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와 니켈,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모습.

오일쇼크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팬데믹(Pandemic)이 끝나고 엔데믹(Endemic)으로 가는 길목에서 또 다른 위기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바로 오일쇼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규제가 시작되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막힐 경우, 배럴당 국제유가는 20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1970년대 오일쇼크의 재현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국제유가 변동에 유독 민감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지구상 가장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경제 규모 대비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당 원유 소비량은 5.7배럴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는 우리 바로 아래, 2위 원유 소

비량을 기록하고 있는 캐나다(5.1배럴)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원유 소비량이 가장 낮은 스위스(0.9배럴)와 비교하면 천지차이다.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 수출 경기도 급락할 가능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유가마저 급등한다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 산업 영향 받을 것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경제 전반의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우리의 핵심 원자재인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경제 내 많은 섹터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교역, 상품, 서비스, 노동 등 다른 시장의 가격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비용 상승에 대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사대우

전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무역투자분과 위원, GVC 재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영향만을 잡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점을 전제로 하고 산업 간 투입-산출 구조를 보여주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비용 상승 압력을 분석해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할 경우 주요 산업의 원가상승률을 추정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정유 산업이 23.50%로 가장 높았다. 또한 철강(5.26%), 화학(4.82%)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외에 선박(1.47%), 자동차(1.40%), 건설(1.17%) 등의 순으로 원가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틸리티나 서비스 부문에서 에너지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의 원가상승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 가스 및 증기 산업의 원가상승률은 20.19%이며, 도로운송서비스 산업은 4.99%이고,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은 4.97%다. 이외에 소화물전문운송서비스(4.76%),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서비스(3.16%) 등도 높은 원가상승률을 보인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률로만 산업 경기를 전망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시장 수요를 확대시키거나 매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기업의 경우 시장 지배력이 높거나 시장이 호황이기 때문에 비용 상승의 가격 전가 용이해 국제유가 상승이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최근의 산업 경기 여건과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산업별 경기에 명암이 존재한다. 우선 당분간 어려움을 겪

을 산업으로, 제조업에서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이고 유틸리티 및 서비스업에서는 전력, 항공운송, 도로운송 등으로 예측된다. 제조업에서는 원유가 주된 원자재인 정유 산업이 가장 높은 원가 상승 압력에 직면하지만, 원유 도입 계약 체결 시기와 실제 생산 시점의 시차 때문에 유가 급등기에는 오히려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정유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분을 쉽게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다. 주유소 기름값이 매일 변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유 산업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에서 다소 비껴나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정유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나프타가 석유화학 산업의 주된 원료인데, 원료 가격의 상승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만, 석유화학 시장은 글로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거의 완전 경쟁 시장이다. 즉, 개별 기업들이 비용 상승 압력을 가격에 충분히 전가시킬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단점은 철강 산업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선업의 경우에는 주된 원·부자재인 후판 가격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연동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수주 산업이라는 조선업의 산업적 특징이 문제가 된다. 수주 산업은 계약과 인도 사이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즉, 제품 가격은 계약 시 정해지지만 인도하기까지 생산 기간 내 비용 상승 요인은 수주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계약서상 불가피한 비용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업의 경우 최근 해운 시장의 호황으로 발주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고유가로 채산성이 확보되는 해양플랜트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는 매출 증가로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을 원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높은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유가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생산비용 상승과 매출 저하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국제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글로벌 시장 선도력이 높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도 있다.

유틸리티·서비스·건설업 부문도 악화 예상

유틸리티·서비스 부문에서는 당연히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 산업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이 주된 원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높은 비용 상승

압력을 받는다. 그런데 이들 산업이 독과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산업으로 간주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급증한 생산비용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이들 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

서비스업에서는 항공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행기를 움직이는 주된 원자재가 항공유이기 때문이다. 현재 항공사들의 영업비용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최근 팬데믹으로 국제 항공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데 따른 수요 침체까지 겹치면서 항공 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슷한 운수업인 해운업도 연료인 벙커C유 가격이 오르면서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시장 호황으로 운임이 크게 올라 있고 해운업의 주된 타격이 여객 수요가 아닌 화물 수요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건설업의 경우 조선업과 같은 수주 산업적 특성을 가지는 가운데, 최근 주요 원·부자재 가격이 국제



큰 타격 전망되는 항공업 영업비용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가는 항공업은 수요 침체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상승의 연쇄효과로 급등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원자재 안정적 공급 확보에 주력해야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석유 의존도는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건한 성장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일쇼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 모두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고유가를 넘어 오일쇼크, 즉 석유파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 정도가 되면 가격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 단위 또는 산업이나 기업 단위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원유 등 주요 핵심 원자재의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전개될 글로벌 시장 수급 상황에

맞추어 국가 전략 비축 규모에 대해 적절한 수준을 판단하고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산업구조적 차원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실효적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해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높은 석유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하겠다.

셋째, 지금과 같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 구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다만 그 에너지원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일정 수준 이상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DX} 및 그린 전환^{GX} 관련 산업이나 고부가 서비스업 등의 성장⁺에너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비상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유가 급등과 연동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원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국제유가 수준 단계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실행 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 전사적^{全社的} 사내 비용 절감 캠페인 실시, 재고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노력도 필요하다. 나아가 제품 생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대해 가격 변동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헤지 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담 부서의 설치, 전문 인력의 영입 및 사내 육성 등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by}



유틸리티·서비스
부문 원가상승률

전력, 가스 및 증기 산업

20.19%

도로운송서비스 산업

4.99%

항공운송서비스 산업

4.97%

소화물전문운송서비스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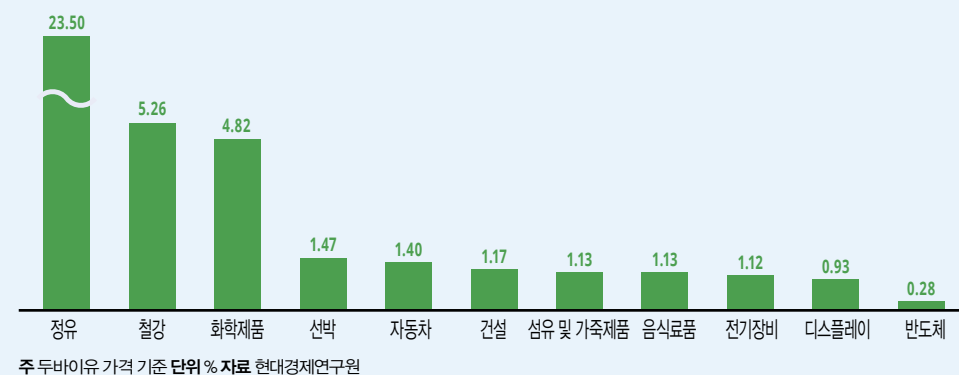
4.76%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서비스 산업

3.16%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국제유가 배럴당 연평균 100달러 시 주요 산업별 원가상승률 추정



- 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여부에 따라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 예상 가능
②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전환이 성패의 핵심



김명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며, 국제통상포럼 위원장,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위원, WTO경제분석국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한 중소기업의 민첩한 전환 노력 필요

코로나19 상황에 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유가 상승, 원자재 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수출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기업들은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를 경악하게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를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몰아 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참혹한 상황은 그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도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붕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산업생산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분석의 주된 초점은 팬데믹에 의해 초래된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제는 전쟁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 되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쟁의 향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쟁 장기화되면 원자재 부족·

글로벌 금융 불안정 초래

최악의 시나리오는 확전을 우려한 서방의 제약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최고 단계 수준의 경제제재로 러시아 경제의 파탄이 예고되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 역시 수렁에 빠지는 기간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국제적인 갈등이 확산되면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붕괴에 따른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세계 경제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겪을 수 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5% 미만인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가는 이미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전환에 따라 널뛰기를 하고 있다. 유가뿐 아니라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최근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원자재 중심의 150개 품목에 대해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에너지와 원자재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위시한 제조업이 심각한 원자재 부족 상황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식량난이 개발도상국들의 체제 불안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이미 기정사실로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글로벌 금융 불안정은 다수의 개도국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의 시나리오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높아

또 다른 시나리오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및 러시아 내에서의 반전 여론 확산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푸틴이 실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 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단기적인 부작용은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푸틴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의 중장기적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크라이나의 산업 기반을 복원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의 심각한 붕괴 기간은 단축되었지만,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매우 클 것이다.

먼저 원유 가격이 200달러에 육박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100% 가까이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세계 경제가 동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국가별 비중

사우디아라비아

30.0%

미국

13.3%

쿠웨이트

10.7%

러시아·UAE

6.2%

이라크

5.8%

주 2021년 9월 기준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스태그플레이션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로,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고물가 상태를 의미한다.



니켈 최대 생산국 러시아 유가뿐 아니라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니켈 등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 부문의 비정상적인 위축이 주 원인이 되어 물가 상승과 동반하는 실물경제의 위축이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시장에서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투자 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파른 유가 상승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하락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및 대금 결제가 불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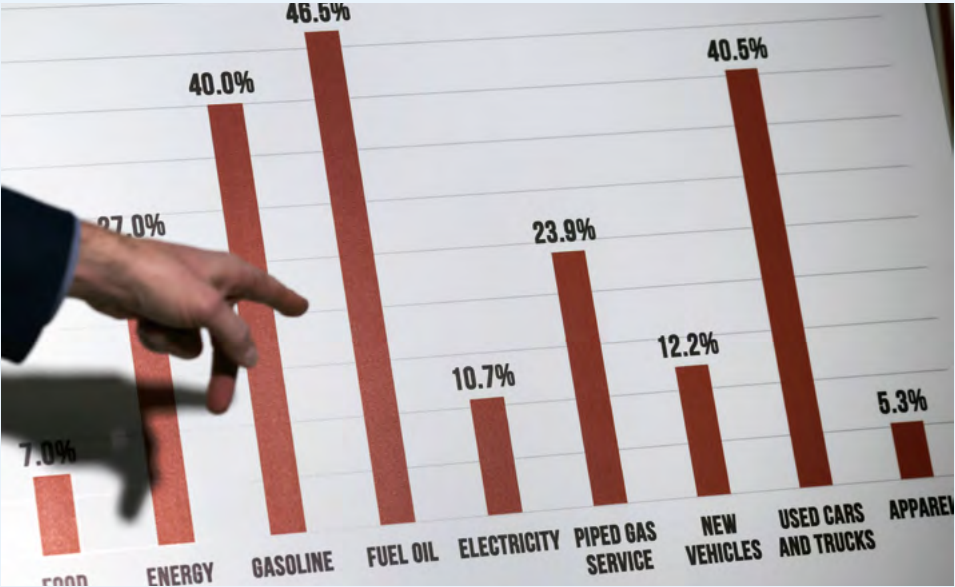
에너지 의존도 감소 위한 기술혁신 필요

이와 같이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그 경제적 충격은 과거 세계 금융위기 수준을 상

회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중소기업들을 포함해 우리 기업들은 위기 돌파를 위한 비상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그리고 고유가의 장기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기업의 경우, 비상한 기술혁신과 업종 구조조정을 통해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모든 업종에서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기술혁신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금지 조치와 중국산 요소수 수입 중단 사태를 통해 계속 강조되었던 핵심 생산 요소 및 원자재 공급 구조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신시장 개척 및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단계에서 단기적인 수익성 등의 경제적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 높은 주요 품목			
	품목	수입액	비중
 러시아	나프타	43억8,302만	23.4
	석유·역청유(15도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	28억8,004만	92.6
	대게	2억3,114만	100
	페로실리콘(실리콘 함유량 55% 초과)	1억5,474만	34.6
	페로실리코크로뮴	4,298만	92.9
	크세논	2,786만	31.3
 우크라이나	해바라기씨유	3,483만	54.7
	크립톤	1251만	30.7
	네온	133만	23.0

주 2021년 기준, 국제품목 분류 코드(HS코드) 10단위 분석 단위: 달러·%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앞에 닥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원유 가격이 200달러에 육박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100% 가까이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세계 경제가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요인과 더불어 지정학적 안정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 시장으로부터 대거 철수할 때 당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던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완화된 러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해 지금까지 진출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억압형 권위주의 체제가 인근 국가에 대한 패권적 위협을 확대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지정학적 특성을 보일 경우, 장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단기적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 최소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과거 여러 번 경험했듯 이번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적인 위협과 충격이 초래하는 경제위기 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것은 기술혁신을 통한 민첩한

전환 여부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제품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기술혁신의 노력으로 대응한다면 과거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기업들의 경험을 능가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능동적으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다. 러시아 시장과 우크라이나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중소기업들의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정책 지원과 함께 대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혁신 지원과 기존 지원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정책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동신툴피아

고객존중 경영 통해
공구 유통의 대부로 '우뚛'

도구 사용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도구 중 대표적인 것은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공구Tools'라고 할 수 있다. 공구는 용도에 따라 절삭공구, 연삭공구, 다듬질 공구, 측정용 공구, 손작업용 공구 등으로 나뉜다. 공구 없이 맨손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나 장치는 거의 없다.

서울 독산역 부근의 동신툴피아는 54년째 공구 유통을 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공구 유통 업체다.

서울 독산동에 있는 동신툴피아는 '공구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취급하는 유통 업체로 절삭공구 등 국내외 700여 브랜드 25만여 종을 취급하고 있다.

이 중 국내 브랜드는 655개 브랜드 23만 종, 해외 브랜드는 88개 브랜드 2만2,000종에 이른다. 자사 브랜드도 켄키(수공구), 웰즈(용접공구), 이엑스파워(틀링공구), 케이디와이(원예공구) 등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동신툴피아는 방대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상품을 매입해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시한다. 취급 제품은 작업공구, 절삭·틀링·금형, 측정·계량·계측, 전동·엔진, 에어·유압, 운반·하역·포장, 용접기자재, 산업안전·생활용품 등이다.

거래처는 4,000여 곳이며, 2021년 매출은 약 1,800억 원에 달했다. 2009년 말 516억 원에서 12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2025년 매출 목표는 3,000억 원으로 '2530'이란 구호를 만들어

목표를 향해 정진 중이다. 사세가 커지면서 고용도 대폭 늘어났다. 2009년 말 100여 명이었던 직원 수가 지난해 말에는 350여 명으로 3배가량 늘었는데, 이런 공을 인정받아 '2018 대한민국 일자리 100대 으뜸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그해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철공소 작업 소년이

공구 유통사 회장이 되기까지

동신툴피아의 김동연 회장은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고향의 야간 중학교를 나온 뒤 1960년대 중반 상경해 서울 서대문 로터리 부근의 작은 철공소에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디뎠다. 평음과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10여 명의 종업원이 선반으로 쇠를 깎고 밀링으로 구멍을 뚫는 업체였다. 김 회장은 당시 16세의 나이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구슬땀을 흘리며 선반과



김동연

(주)동신툴피아

대표이사



“ 김동연 회장은 타고난 기업가다. 그는 ‘최상의 품질, 합리적인 가격, 신속한 납기를 강조했다. 더불어 거래처의 수익성까지 함께 생각하는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려 애썼다. 이게 바로 공구 유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

밀링 작업을 했다. 거처는 공장 부근 순화동의 한 다락 자취방이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자라 국내 굴지의 공구 유통 기업 회장이 되었다.

김 회장은 “당시엔 제대로 된 수입 공구를 구경하기도 쉽지 않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것들을 닦고 기름칠을 해 파는 정도가 고작이었다”며 “퇴근해서는 너무 추워서 뜨거운 물

*절삭공구

절삭공구는 쇠를 깎고 구멍을 뚫는 공구다.

통을 안고 잠들기가 일쑤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1968년 공구 유통 회사인 ‘동화기공’으로 자리를 옮겼다. 동화기공은 서울 장사동(청계천 3가 서울극장 맞은편)에 있었다. 이 회사는 그해 사촌형이 세웠지만 창업 초기부터 김 회장이 함께 경영해 왔다. 김 회장은 철공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손님들에게 공구를 추천했고, 그에게 공구를 추천받은 손님들은 모두 단골이 되었다. 김 회장은 “다양한 공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 좋은 공구를 추천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유명한 공구 전문가가 된 그는 1984년 동화기공을 아예 인수했다. 그 뒤 발로 전국을 누비며 거래처(소매 업체)와 생산 업체를 발굴했다. 서울, 대전, 대구, 창원(당시 마산), 부산 등을 수없이 다니며 거래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생산·영업·마케팅·관리 업무를 몸소 체득했다. 1990년 7월에는 (주)동신틸링시스템으로 법인전환을 하고 2006년 사명을 ‘동신틸피아’로 변경했다. 툴피아는 ‘공구 Tool’과 ‘유토피아 Utopia’에서 따온 것이다. 독산역 부근에 있는 10층 건물의 동신틸피아 창고에 들어 서면 도서관 서가처럼 생긴 곳에 절삭공구*, 측정공구, 에어·유압공구, 작업공구, 기계공구, 전동공구 등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이를 전국 각지의 공구 소매 업체에 공급한다. 일종의 공구 도매 업체인 셈이다. 김 회장은 “우리는 절삭공구에 특히 강점이 있다”며 “드릴, 엔드밀, 탭, 인서트 등 각종 절삭공구 분야에서 국내 최대 유통 업체”라고 설명했다.

자동화 시스템과 상생협력의 가치

김 회장은 타고난 기업가다. 그는 △최상의 품

질 △합리적인 가격 △신속한 납기를 강조했다. 더불어 거래처의 수익성까지 함께 생각하는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려 애썼다. 이게 바로 공구 유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귀결된다.

먼저, 경쟁력 있는 물류 시스템이다. 이른바 ‘동신평정자동화시스템’이다. 보관 상품의 입고, 출고, 유통 가공, 재고관리에서부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까지 다양한 기능이 연계·구축된 시스템이다. 지금은 바코드 시스템을 갖춘 곳이 많지만, 동신틸피아는 약 20년 전부터 바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컴퓨터와 연결해 물류를 관리해 왔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다.

적정재고, 통계분석 등 다양한 정보 지원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특히 고객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솔루션으로 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전국 1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서울과 수도권은 당일, 지방은 익일 배달체계를 만들었다. 요즘은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물류 기업 간 신속배송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동신틸피아는 전국 물류망을 이용해 신속한 배송 체제를 구축해 놓은 지 오래다.

김 회장은 “우리는 40여 대의 배송 차량을 이용해 전국 100개 코스를 운행하고 있어 국내 웬만한 지역은 하루 내 배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구 유통 업계에서 50여 년 축적된 물류 노하우를 통해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굿 파트너 Good Partner’ 정신이다. 김 회장

은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판매한 상품에 대해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고객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전문가들은 업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해 고객사에 빠르게 전달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덧붙였다.

구매 컨설팅 및 산업 자재를 제공하는 것도 이런 고객 서비스의 일환이다. 김 회장은 “고객사의 생산 계획부터 구매까지 비용과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며 “때로는 제품의 가격과 시장 동향을 예측함으로써 시장 트렌드와 사업 영역에 대한 컨설팅도 제



동신평정자동화시스템

동신평정자동화시스템 Dongshin Process Automation System, DPAS은 보관 상품의 입고 및 출고부터 유통 가공, 재고관리,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까지 판매 정보의 연계와 적정재고, 통계분석 등 다양한 정보 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고객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 ① **주문** 전화와 기업 간 거래B2B 사이트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의 주문을 접수한 후,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물류팀에 주문 내용을 등록
- ② **상품 정보관리** 주문 상품의 재고를 물류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 ③ **컨베이어 시스템** 물류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품을 출고장으로 이동
- ④ **자동분배 시스템**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한 상품들이 자동분배기에 의해 주문 지역과 고객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배
- ⑤ **검수 및 포장** 분류된 상품들을 정밀하게 검수하고 포장
- ⑥ **상품 출고** 검수와 포장을 마친 상품들은 출고 후 지역별로 배송

공한다”고 설명했다. 고객사가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까지 해 주는 것이다.

산업 자재 및 소모품 자재 공급(MRO 서비스)을 통해 일괄구매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별 기업이 산업용재를 구매할 경우 대개 다양한 상품을 소량, 고빈도로 구매한다. 그러면 구매 업체 선정과 협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수동 주문 및 결산 시스템은 업무 처리의 효율을 떨어뜨려 고비용 문제를 개선하는 것 역시 어렵다.

김 회장은 “우리는 전문 유통 기업으로서 구매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해 구매 프로세스를 합리화하고 간접비용을 절감해 고객사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좋은 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내부 고객이건 외부 고객이건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평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파트너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고 서로 협의를 통해 모든 일을 조율해 나가는 ‘원팀(One Team)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독일 히든챔피언처럼

장수·강소기업 만들 것

“백년을 넘어서는 장수기업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요즘도 아침이 되면 가슴이 설칩니다.”

김 회장은 동신툴피아의 미래 비전을 한마디

김동연 회장의 경영 방침

1. 최상의 품질

국내 최대 산업용품 유통 업체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갖춘다.

2. 합리적인 가격

유통 기업 구매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해 구매 프로세스를 합리화하고 간접비용을 절감한다.

3. 신속한 납기

파트너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고, 협의를 통해 모든 일을 조율해 나간다.



창업
1968년

— 본사

서울 금천구 독산동

— 업종

산업용 공구 유통

— 자사 브랜드

센키, 웰즈, 이엑스파워,
케이디와이 등 다수

— 임직원

350여 명
(베트남 직원 포함)

— 2021년 매출

약 1,800억 원

— 지사 및 영업소

중부지사(청주), 영남지사(부산),
광주영업소, 전주영업소,
대구영업소, 울산영업소

로 ‘독일 히든챔피언(글로벌 강소기업)’에서 찾는다. 바로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구상만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통해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먼저 그는 끊임없이 공부한다. 김 회장은 “국내외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경영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다”며 “칠순이 지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실천이 삼성글로벌리서치(SERI) (옛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하는 ‘SERI CEO’다. 그는 “올해로 16년째 SERI CEO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넷에서 실시하는 경영자 교육도 수강한다. 지금도 서울 광장동 자택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해 독산동 본사에 도착한 뒤 회사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틈틈이 공부를 이어간다.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도 필드에 나가면 종종 싱글을 칠 정도로 프로 수준의 골프 실력을 갖추고 있다. 비거리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는 오랫동안 테니스를 통해 다져온 체력이 밑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듯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판단력도 흐려진다. 따라서 건강관리가 기업인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백년기업을 위한 올바른 기업승계

국내 1세대 경영인이 가장 고민하는 부문이 기업승계다. 기업승계는 때로 자녀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김 회장은 오래전부터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적절한 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화를 넘김에 따라 경영의 상당 부분을 세 자녀에게 넘기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주요 업무는 세 자녀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은 장남 김종현(46) 대표이사 사장은 대학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해 영어와 일어에 능통하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대에서 연수를 받은 뒤 글로벌 공



2020·2021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2019. 11

중견기업 성장탑 수상

2018. 0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2016

산업자원부 장관상 표창
DSVINA 설립(베트남 호찌민)

2014

5대 김동연 회장
금천구 상공회 회장 취임

2010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한국무역협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 획득
대통령 표창(공정거래위원회)

2004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2002. 11

ISO9001 인증 획득

1999. 06

사옥 이전(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990. 07

(주)동신툴링시스템으로
법인전환

1968. 05

동화기공사 설립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성공적인 기업승계 위한 가족 경영인 동신툴피아의 창업자인 김동연 회장과 그 뒤를 이어나고 있는 2세 경영인들이다. 왼쪽부터 김종현 사장, 김동연 회장, 김명선 상무, 김수현 이사.

구 업체에서 근무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2005년 동신툴피아에 입사해 해외무역과 기획·영업 분야를 담당했다. 2009년 김 사장은 해외 유통망을 발굴하기 위해 직원 몇 명과 함께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비즈니스 여행은 입사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경쟁력 있는 공구 제조업체 100여 곳을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팔

끝에 50여 개 기업과 거래하게 되었다. 김 사장은 국내 유통망 유지와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5년에는 11만 개의 산업 공구를 담은 산업용재 공구 종합 카탈로그 ‘KTH-4’를 발행했다. KTH-4는 QR코드가 도입된 공구 종합 카탈로그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 정보와 가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구매할 수 있다. 김 사장은 부친의 경영철학인 ‘상생협력’에 ‘소통’의 가치를 더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며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김 회장의 차녀 김명선(43) 상무는 재무와 총무를 맡아 회사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고 있다. 막내 김수현(41) 이사는 영업과 마케팅, 제품 개발을 담당한다. 김 이사가 발굴해 판매 중인 한 전동공구 브랜드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 회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등으로 기업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이 놀랍도록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만큼 자녀들에게 시행착오를 해도 좋으니 새로운 것에 적극 도전해보라고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자녀들에게 ‘믿고 맡기는 전략’을 통해 백년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ESG평가정보 대표이사

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원, LG환경연구원 연구컨설팅 센터장이었으며, 현재 지속가능발전소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 가능 전략을 지원하는 SLL

지속가능성 연계대출^{SLL}은 중소기업에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존,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행과 정부에도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부여되는 SLL의 의미와 활용법에 대해 소개한다.

#

태양광 인버터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A는 최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 상담차 IBK기업은행을 방문했다가 “ESG 목표만 설정해도 대출금리가 1%포인트가 낮아진다”는 상품을 소개받고, 안내에 따라 ‘지속가능성 성과목표^{SPT} 검토 신청서’를 작성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했다. 그리고 곧 ESG 평가정보로부터 연락을 받고 신청서 내용에 대해 취지와 지속가능성 성과목표 설정 등에 대해 상의한 끝에 목표를 수정·보완한 후 대한상으로부터 ‘지속가능성 성과목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복잡한 절차를 거쳤지만, 대출 신청 시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자 저금리로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으로는 받을 수 없는 수준의 저금리였다.

이 이야기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지속가능성 연계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 SLL} 상품인 IBK기업은행의 ‘ESG성공지원 대출 상품’의 실제 대출 사례다.

SLL은 저탄소 경제사회를 대비해 기업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대출을 지원한다.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ESG경영 목표와 노력 여하에 따라 대출 혜택이 달라진다.

기업의 생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유효한 대출

전 세계에서 이러한 SLL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 정보 업체 레퍼니티브^{Refinitiv}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300% 급증한 7,17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SLL이 등장한 것은 불과 5년 전인 2017년 4월, 16개 은행 컨소시엄이 필립스의 지속가능성 실적에 따라 금리가 좌우되는 조건으로 12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합의하면서부터다. 이후 ESG 투자나 채권 발행이 아닌 대출을 선호하는 기업에 지속가능성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 달성과 연계되는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ESG 개선을 위한 금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SLL이 단순히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생존,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은행 및 정부에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사실 지속 가능한 금융시장이 직면한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그린워싱^{Green Washing*}

이다. 2018년 영국 금융감독원^{FCA}이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진정한 지속 가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기준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에 대출 시장에서의 그린워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시장협회^{LMA}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대출시장협회^{APLMA}, 대출신디케이트거래협회^{LSTA}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지원을 받아 2018년 ‘녹색대출원칙’을 발표했다. 이후 2019년 SLL원칙, 2021년 사회대출원칙이 발표되면서 지속 가능 금융에 관한 세 가지 대출 원칙이 마련되었다.

그중 SLL은 차주 기업이 개선된 ESG 등급 또는 기타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와 같은 미리 합의한 지속가능성 성과목표^{SPT} 달성을 장려하는 대출 상품을 말한다. SLL을 통해 환경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및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대출 기간 동안 차주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이 개선되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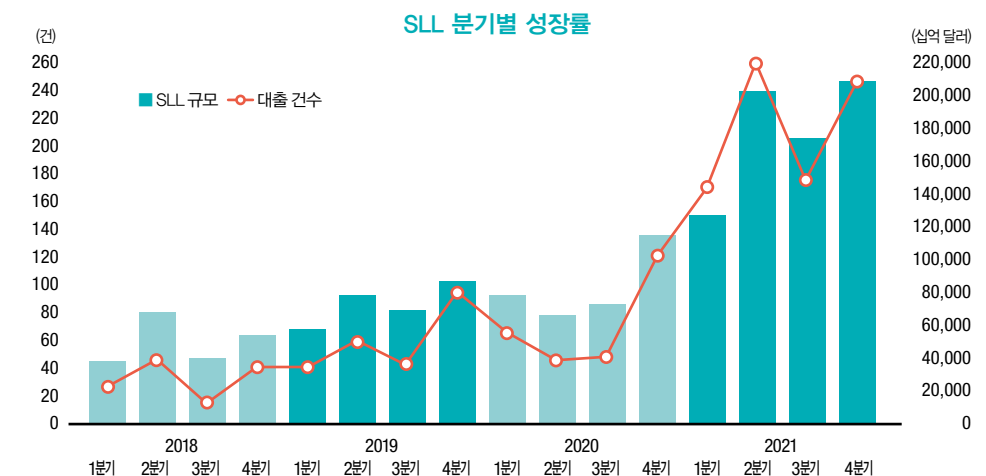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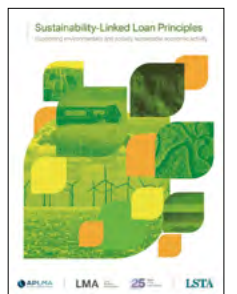
*그린워싱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니면서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를 말한다.

*핵심성과지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지표를 말한다.

‘지속가능성
연계대출 원칙’



자료 레퍼니티브



주요국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2025년
노르웨이

2030년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2035년
EU, 미국 캘리포니아주

2040년
프랑스

명확한 KPI를 정의해야 하는데, 이 KPI는 △차주 기업의 지속 가능 이슈 및 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대한 지표 △측정 가능하거나 정량적 방법론을 사용한 지표 △벤치마크가 가능한 지표로 선정한다. 차주 기업은 KPI와 SPT에 대해 대출기관인 은행과 명확히 소통하고 합의해야 하며, SPT는 사후 보고 시 외부 ESG 평가사에게 의무적으로 검증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선정한 SPT를 충족하는 기업은 낮은 금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으로, 중요한 것은 '설정된 목표'가 기업 비즈니스에서 의미가 있어야 하며 충분히 도전적이어야 한다.

즉, SPT와 연계되어 목표를 충족하면 이자율을 할인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율이 인상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포지티브-인센티브 론' **Positive-incentive Loan**이라고도 부른다. SLL은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대출 구조 **Two way pricing**를 통해 지속 가능 전략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은행 등 대출기관이 기업의 ESG경영 개선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

최근 SLL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 때문이다. 지난 1월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는 코로나19처럼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드는 미래의 지구적 리스크가 '기후 리스크'임을 인식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와 파리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을 통해 저탄소 경

제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모두의 숙명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는 다양한 규제와 국가 전략을 통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준비하는 전환금융, 사회금융도 낙오되는 중소기업을 모두 구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경쟁적으로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 1월 유럽은 전기차 판매량이 디젤차를 앞질렀다. 반면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가 아산공장에서 전기차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50일간 가동을 중단한 것만으로 국내 3만여 개에 달하는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고용 불안과 매출 감소 등으로 준폐의 기로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지하듯, 전기차는 전자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기존처럼 많은 양의 자동차 기계부품이 필요치 않다.

현대차뿐 아니라 많은 자동차 메이커는 저탄소 규제에 직면해 비즈니스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수많은 기존 자동차 협력업체는 빨리 미래의 방향을 정하고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금융이지만, 기존 금융은 목표나 노력하는 과정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평가를 통해서 이미 ESG가 우수한 기업에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중소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당겨진 수소·전기차 시대 2030~2040년 사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제가 도입되면서 수소·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협력업체의 비즈니스 전환이 불가피하다.

IBK기업은행의 첫 SLL, 'ESG성공지원대출'

SLL 원칙은 그 대출 조건이 차주 기업이 합의한 지속가능성(ESG) 관련 성과에만 적용된다. 대출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사용하는 녹색대출과 달리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의 운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의 유연성 때문에 기업의 전반적인 ESG 성과를 개선하는 이점과 함께 '친환경'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 부문에도 사용할 수 있어 차주 기업에 매력적인 옵션이다.

이처럼 SLL은 앞으로 ESG 리스크에 직면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대표적인 '지속 가능 금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번에 IBK기업은행이 출시한 'ESG성공지원대출'은 국내 첫 SLL 상품인 만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끝에 우선 12개의 KPI를 정했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기 전에

평가사가 다시 한 번 KPI와 목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진정성 있는 목표가 아니면 평가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고, 대출 후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현재 IBK기업은행과 같은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러한 금융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다면 1%포인트가 아닌 그 이상도 낮출 수 있고, 더 많은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싱가포르 및 홍콩의 금융당국은 SLL을 포함한 지속 가능 금융 상품을 발행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민간 금융시장과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 SLL의 국제적 성장궤도에 맞춰 한국의 지속 가능 금융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기업에도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IBK기업은행은 IBK최고경영자클럽, IBK여성경영자클럽, IBK미래경영자클럽 등 IBK 3대 명품 클럽을 통해 IBK기업은행과 기업인의 건강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2월 IBK미래경영자클럽 신년회에 참석해 패기와 열정, 도전정신으로 가득한 젊은 경영인들을 만나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하고 이들의 혁신과 성장을 응원했다.

금융권 유일한 젊은 리더들의 모임

IBK미래경영자클럽

IBK미래경영자클럽은 2005년 창립된 IBK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젊은 경영인들의 모임으로,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강화하고 회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뉴리더 클럽이다. 인적 네트워크 교류를 위해 다양한 경영 전략 세미나와 지역 분회 활동, 신년 세미나 및 송년 세미나, 그리고 비대면 소통창구인 모바일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 현안 및 각종 이슈, 인문, 사회, 예술, 기업승계, 세무, 리더십 등 기업 경

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초청 강연을 열어 기업 경영을 위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밖에 IBK컨설팅, 경조사 지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앞장설 것

IBK미래경영자클럽 신년 세미나 개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2월 25일 조선포탈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IBK미래경영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영인이 해야 할 일 IBK미래경영자클럽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젊은 경영인들은 건강한 협력을 도모하는 기회를 가졌다.



젊은 경영인을 위한 특별강연 윤종원 행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자클럽 신년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윤 행장을 비롯해 전무이사, 기업고객 그룹장 등 IBK기업은행 임직원 및 클럽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IBK미래경영자클럽의 회원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ESG경영 등 책임경영이 강조되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IBK기업은행이 동반자로서 늘 함께하며 젊은 기업인들을 위해 특별히 더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 행장은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이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을 통해 윤 행장은 대변혁의 시대임을 강조하며 탈세계화와 기술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기업과 미래 산업을 보다 과감히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IBK미래경영자클럽 회장단 기업

글로벌 자동차부품 산업 선도 기업

(주)동보(김지만 클럽 회장)

동보는 1966년 설립 이후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역사와 같은 길을 걸어온 엔진 및 변속기 부품 전문 기업이다. 고객 만족, 품질 제일, 현장 중심 경영철학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보는 수준 높은 품질관리와 생산 체계로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꾸준히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되어오고 있다.

오토 밸브 제조 및 유통 기업

(주)토오텍(박흥동 클럽 부회장)

오토 밸브 전문 기업인 토오텍은 액정표시장치^{LCD} 세정 장비, 반도체 장비, 인쇄 회로기판^{PCB} 장비, 자동화 설비, 시험 장비, 수처리 설비 및 각종 발전소와 플랜트 공사에서 얻은 폭넓은 경험과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와 환경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최적의 오토 밸브를 제조 및 유통하고 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 기업

(주)우석산업(맹지선 클럽 부회장)

1994년 설립된 우석산업은 아스콘 및 쇄석골재를 생산하여 판매 중에 있다. 1996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관련 단체표준 인증을 획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골재 밀도가 높고 흡수율이 낮아 내구성이 우수한 아스콘을 표준산업규격에 부합되도록 생산해 오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를 대비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자 직원을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채굴한 석산을 재활용하는 신사업을 구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의약품 생산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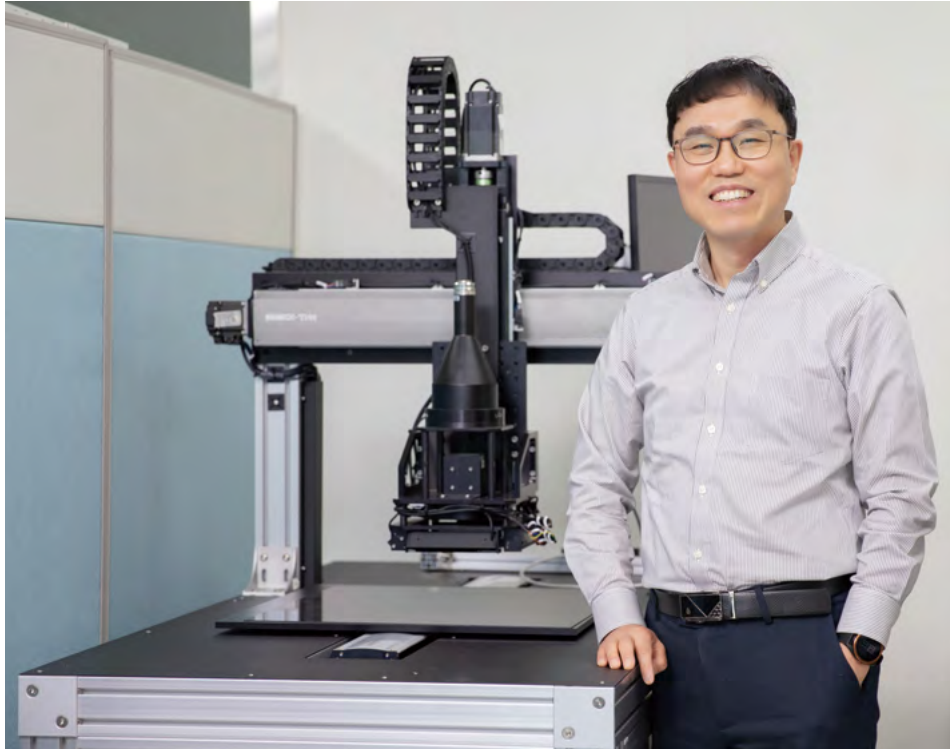
(주)한국백신(하성배 클럽 부회장)

예방의약품 및 의료용구 전문 생산 기업으로 지난 1956년 설립된 이래 60년간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 왔다. 우수한 인체백신, 의료용구의 연구·개발·생산·공급에 매진했다. 또한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수의 해외 시장에 품질 좋은 주사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2002년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 기준 품질마크인 CE마크를 획득했다.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기업

(주)진한(배성환 클럽 부회장)

진한은 1983년 창립 이래로 현재까지 최신의 생산설비와 숙련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985년부터 LG생활건강과 협력관계를 맺고 현재까지 진한의 주 고객사로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화장품 용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의 일원으로 청결한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생산설비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핵심 기술
머신비전 컴포넌트 &
솔루션


글로벌 머신비전 시장 규모
149억 달러(2022년)
(연평균 6.9% 성장률)


2022년 예상 매출
22억 원

구로 7기

(주)아이코어

박철우 대표

머신비전 소부장 전문 기업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다

*Start-up Introduction

아이코어는 고성능 머신비전의 핵심 부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부담 없이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할 수 있는 컴포넌트와 솔루션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 펍권*' 기업으로 선정되어 이미 개발 제품에 대한 창의성과 기술성, 미래성장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머신비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부품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퍼스트 펍권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먼저 도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이코어의 핵심 기술은 머신비전 초정밀 검사 부품과 솔루션입니다. 특히 최적의 아날로그 회로 설계 기술과 정밀기구 및 광학조명 설계 기술은 국내외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머신비전 업계에서 십수 년 이상 최고의 제품을 개발했던 전문가들이 모여 창업했기에 국내외 시장의 기술적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머신비전이 도입되려면 1년 365일 쉬지 않고 동작해도 고장이 없어야 해서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신규 제품의 경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신뢰성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코어가 개발한 제품들은 세계 최고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여러 기업에서 다양한 검증 과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코어는 향후 5년간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에 많은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이 손쉬우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검사 솔루션을 일반 중소기업에 공급해 스마트팩토리 보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포 8기

클린사이언스

박순복 대표

에어흡입력 증폭 기술 청정장치로
제조 산업의 안전을 책임진다



롤투를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롤 타입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다량의 분진이 발생되고, 이는 회전을 표면을 오염시켜 품질 불량, 협착 재해, 작업 환경 열위를 유발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품질 확보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기여하기 위해 회전을 청정장치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클린사이언스의 '회전을 청정장치 솔루션'은 에어 증폭 기술에 기반한 강력한 흡입력을 발생시켜 회전을 표면에 잔류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온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냉각효과를 부여해 롤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 에어 증폭 원리를 적용한 이 물질 제거 기술로 회전을 주변에서 분진 발생과 동시에 강력한 흡입력으로 100% 분진 제거율을 자랑합니다.

분진 처리 분야 전체 시장은 7조9,000억 원, 회전을 오염물질 제거 분야 유훈 시장은 4조 원, 배터리 신소재 생산 공정 롤 표면 오염물질 제거 분야의 수익 시장은 2조 원에 이릅니다. 앞으로 클린사이언스는 에어 증폭 원리를 적용한 유해 화학물질 제거용 집진 처리 분야에 진출하고 집진 처리 시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하는 기능성 필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Start-up Introduction

클린사이언스는 오랜 기간 포스코 작업 현장에서 쌓아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효율의 에어 증폭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회전을 표면 청정장치를 개발했다. 과거 수작업으로 회전을 청소할 때 협착 사고 등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났다. 클린사이언스는 청정장치 자동화를 통해 생산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사망재해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준다. 기존 제품 대비 작업 효율 및 안정성에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이미 포스코 등에 납품을 시작했다.

 핵심 기술
회전을 청정장치 솔루션

 분진 처리 분야 시장 규모
7조 9,000억 원

 2022년 예상 매출
8억 원



*롤투를 공정(Roll-to-Roll Processing, R2R, Web Processing)

여러 개의 휘어질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금속박에서 전자기기를 만드는 것이다. 대형 전자장치에 롤투를 공정을 사용하면 제조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민병운 (주)테미스코프 리서치앤컨설팅 대표이사
광고학 박사, 서강 트렌드 사이언스센터 선임연구원이며, 저서로 <코로나 시대의 역발상 트렌드> 등이 있다.

소비자의 절반, 여심을 잡아라

사회대부분의 영역이 그랬듯 소비자 세분화 및 마케팅 역시 남성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은 소비자 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여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여성 입장에서 사고하는 젠더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 역시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이다.

성공 사례

기업 전통 깨고 여성 제품 출시해 더 큰 사랑받은 글로벌 완구 기업 L사

글로벌 완구 기업 L사는 세대를 불문하고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블록 완구의 대명사다. 하지만 L사도 항상 성공을 거뒀던 것은 아니다. L사는 다양한 세대를 공략한 것으로는 성공했지만 오랫동안 남자 아이들만의 장난감으로 인식되어 여자 아이들의 호감을 사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L사는 다음과 같이 젠더 감수성을 발휘해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시작했다.

첫째, L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군인 '미니 피규어'에 여성 캐릭터를 추가해 의식적으로 성비를 맞췄다. 미니 피규어는 한 세트에 16종의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L사는 이를 출시할 때마다 여성 캐릭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갔다. 이

런 시도는 비단 여자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성별은 대략 남성과 여성이 50대50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노는 모든 성별의 아이들이 피규어 구성을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L사는 여자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하위 브랜드인 '프렌즈'를 론칭했다. L사 창립 약 60년 만에 여자 아이들 브랜드를 론칭한 것이다. L사는 이를 위해 샤넬 디자이너 출신의 여성을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했다. 그래서 브랜드 테마, 컬러, 아이템까지 여자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고자 노력했다. L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디즈니 프린세스' 시리즈까지 론칭하며 1030세대 여성 소비자까지 공략했다. L사의 성공 방정식인 세대별 공략이 여성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L사의 여성 브랜드 확장 전략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고, L사는 남자 아이들만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셋째, L랜드와 L무비에서도 젠더 감수성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테마파크에서 보이는 구조물, 어트랙션, 공연 등에 여자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강화했고, 영화에서도 여성 주인공을 대거 등장시켰다. 결과적으로 L사는 젠더 감수성을 통한 시장 확장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 부문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

성공의 한 곳

- 1 성비 맞춘 제품 출시로 올바른 젠더 인식 구축
- 2 여성 소비자 공략한 새로운 브랜드 출시
- 3 어트랙션, 공연 등 다른 사업에도 젠더 감수성 마케팅 연계

실패 사례

시대정신 간과한 화장품 플랫폼 기업 M사

화장품 플랫폼 기업 M사는 주력 제품이 화장품인 만큼 여성 소비자가 주 타깃이다. 자연히 젠더 이슈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M사는 여성을 비하하는 광고로 사과문을 게재했고,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부적절한 성 표현이 들어간 광고를 공개하면서 연이어 비난을 받았다. 관련 업계는 M사의 행보가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바이럴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가장 여성 친화적이어야 할 M사가 젠더 감수성 문제로 비난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시대착오적인 성 역할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 과거에는 화장품이 여성 스스로가 아닌 남성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여성의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왔던 이유다. 하지만 지금의 여성은 스스로를 위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길 원한다. M사는 그런 시대정신을 간과했다.

둘째, 펌버타이징 [Femvertising](#)에 대한 무지다. 펌버타이징이란 페미니즘 [Feminism](#)과 광고 [Advertising](#)의 합성어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성 차별적 광고 관행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펌버타이징은 모든 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광고 업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여성 소비자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패션과 뷰티 업계에서 펌버타이징에 민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성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은 만큼 펌버타이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여성 소비자의 파급력을 간과했다. 여성의



실패의 한 곳

- 1 성 역할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
- 2 펌버타이징에 대한 무지
- 3 여성 소비자의 파급력 간과

권리가 높아지고, 기존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초민감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젠더 문제는 다른 이데올로기와 달리 아주 작은 문제로도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성 차별적 광고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외면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M사의 젠더 감수성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결국 M사는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BY](#)



기업승계, 지속 가능한 성장 이끈다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전문가 간담회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 정신의 대물림을 강조하는 기업승계의 필요성이 경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IBK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올바른 기업승계 위한 정책 방안 논의 지난 3월 4일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전문가 간담회'에 여러 분야의 패널들이 참여해 의미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이끈 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승계가 주요 경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승계가 단지 부의 대물림이 아닌, 업의 계승을 통한 기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안정적인 기업승계는 오랜 기술 노하우와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할 뿐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승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IBK경제연구소는 지난 3월 4일 IBK기업은행 본점 5층 IBK열린도서실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승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IBK기업은행 부행장), 이성룡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 김동근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 박사를 비롯해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조봉현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는 물론, 실제 승계를 추진하는 기

업 입장에서 승계와 관련한 제도와 학문적 이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적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세계적 추세에 맞게 제도 개선 이끌어내길

발제자로 나선 김동근 박사는 우리나라 기업승계 제도의 변천과 현황, 기업승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실제 사례를 통한 실태 진단,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박사는 "기업승계 관련 전문 지식을 충실히 다루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특히 풍부한 사례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과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태화 원장은 "기업승계가 경영 성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데이터 분석은 시의성을 가지며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영호 교수는 '가업승계'와 '기업승계'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 내 신뢰와 후계자 교육, 이를 위한 기업 지원을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문갑 본부장은 기업승계란 용어를 선택한 것은 국민 정서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한 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구조적 문제에 주목했다.

김희선 연구위원은 각각의 파트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세세하게 짚었다. 그는 "기업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승계 전후를 비교한 분석은 시의성을 가지며 기업승계의 긍정적 경영 성과에 대한 조명은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도움이 될 것이다."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가족 내 신뢰 강화 및 후계자 교육을 통한 기업의 신뢰 제고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들이 승계를 포기하거나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기업승계의 필요성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쯤 다뤄주면 좋겠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각 항목별 공제요건 미충족 사례와 기업의 요청사항을 함께 제시하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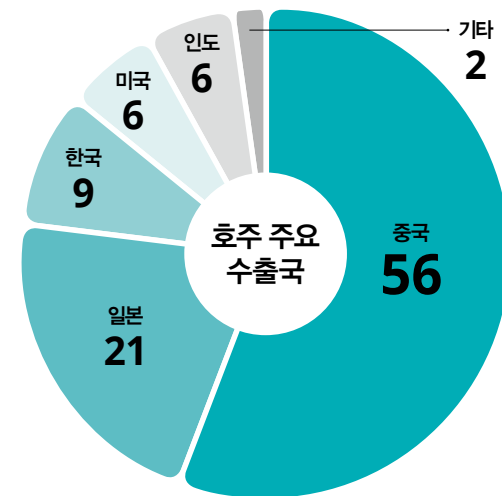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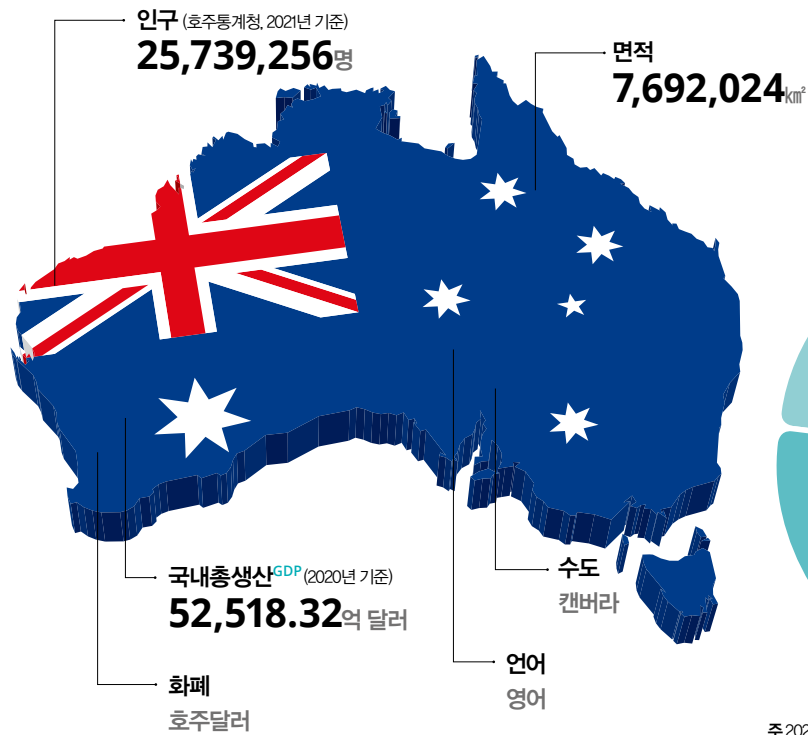


승계로 명명했다는 점은 혈족승계가 아니라 인수·합병(M&A)이나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 사례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문제나 후계자 부재 문제 등과 관련한 데이터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IBK경제연구소는 추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차례 더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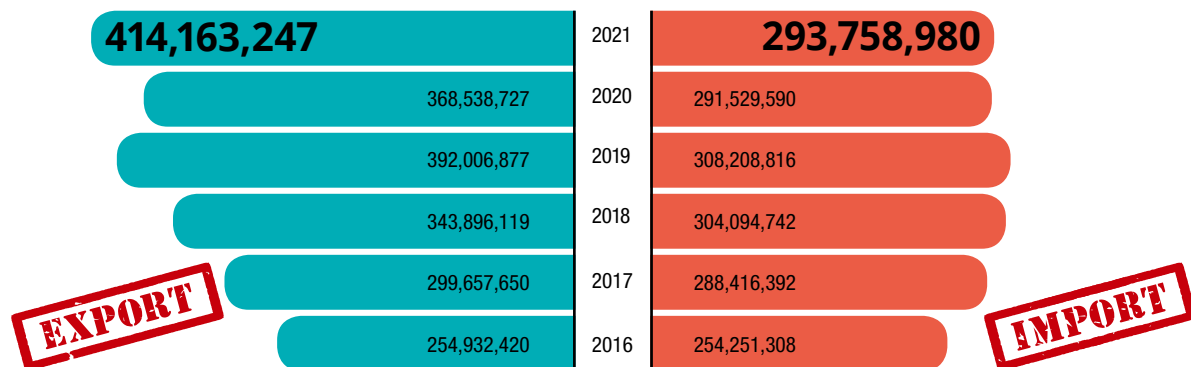
경제협력체계 강화 기대되는 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호주는 호주의 중국 의존도 탈피, RCEP 발효로 인한 관세 장벽 완화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주 2020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전체 수·출입량 단위 천 호주달러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순위 및 비중
수출 10위, 수입 4위



수출 주요 품목

- 1위 경유
- 2위 승용차
- 3위 휘발유
- 4위 철도차량
- 5위 축전지



수입 주요 품목

- 1위 철광
- 2위 유연탄
- 3위 천연가스
- 4위 가축육류
- 5위 원유

주 2022년 1월 기준



소비 성향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호주 내 주요 소비 트렌드는 '그린소비'다. 호주 택배 회사 큐리어스 플리즈 *Couriers Please*에서 발표한 2020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지속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19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상재해에 2021년 상반기까지 가뭄, 산불, 홍수를 모두 겪은 호주인들 사이에서 환경을 고려한 소비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호주 대형 소매유통사인 울월스 *Woolworths*, 콜스 *Coles* 외 주요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기업 활동에 친환경 기조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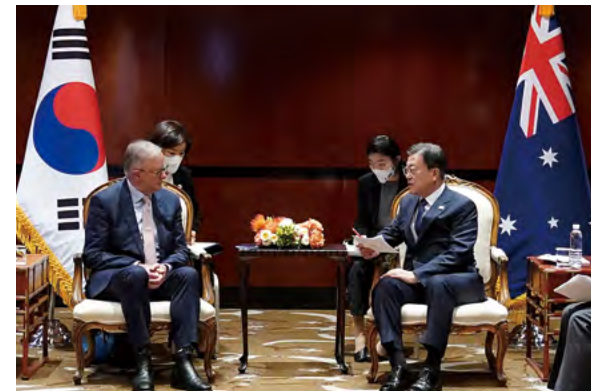
호주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화장품, 식품에서 한국 주류로 그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누적판매량 1만9,055대로 3위를 달성했다. 화장품의 대호주 수출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수출액이 16.2% 증가했다. 식품의 경우 코로나19로 면역력 강화에 좋은 발효식품이 주목받으면서 한국 김치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졌다.



상거래 유의사항

호주는 국토 대비 인구가 적는데 시장 규모도 미국과 비교해볼 때 대략 10분의 1 정도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EU*와 비교할 때 시장 크기가 작아서 1회 주문량이 소량일 경우가 많다. 심지어 케이마트 *K-mart* 및 빅더블유 *Big W*, 울월스와 같은 호주 대형 유통사의 주문량도 해외 공급업자들이 납품할 수 있는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호주 바이어들이 보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 성공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쉽사리 공급선을 변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CEP 발효로 호주 역내 경제협력체계 강화 기대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업그레이드된 한·호주 교역 관계 한국과 호주는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며 더욱 긴밀한 교역을 약속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앤서니 알바네이지 노동당 대표 접견 모습.

1961년 10월 31일 공식 수교를 맺은 한국과 호주는 60년이 지난 2021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양국 전체 교역액은 1965년 492만 달러에서 2014년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이후 2020년 249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상호보완적인 교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5개 FTA와 함께 일본·호주·인도 간 협의회인 '쿼드 *Quad*',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크스 *AUKUS*, RCEP 등 인도·아태지역 외교·통상·안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 수소공급망, 탄소 포집·활용·저장 *CCUS*, 저탄소 철강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 전반에서 민간 공동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데 협의했다.

한편 지난 1월 1일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호주에서 공식 발효되었다. 이번 RCEP을 통해 한국과 호주의 교역 또한 기존 한·호주 FTA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에는 기존 한·호주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소기업 무역규범 관련 챕터가 추가되어 FTA 활용이 미진했던 한국과 호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중소기업의 지역가치사슬 *RLC* 참여가 향상되고,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서 한국과 호주 모두 기존 FTA 대비 관련 시장 개방 분야를 확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이를 중심으로 호주 시장을 공략하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by*

정보제공 코트라 호주 무역관



플랫폼의 통합·연계가 필요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해마다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이를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정보에 관한 전달 방식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의 중심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중소기업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앙부처는 전체 18개 중 16개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던 2000년대 초반과 달리 2017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그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중앙부처의 핵심정책 고객이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플랫폼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창업, 성장, 재창업 등 성장주 기별 중소기업의 금융과 비금융 지원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은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이 운영 주체가 되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정책금융기관 등의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대출, 투자, 보증, 보조금, 보험·공제 상품 정보와 같은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기술, 인력, 판로,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 정보도 제공한다. 기업금융나들목은 '기업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온라인 접수를 통

해 운영하고 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금융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둘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Startup(www.k-startup.go.kr)'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망라해 제공하고 있다.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엔젤투자매칭펀드 등 정책자금 정보는 물론 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연구·개발 R&D, 판로·해외 진출, 행사 네트워크 등 비금융서비스 정보도 제공한다. 그 밖에 창업 소식, 성공 사례 제공, 창업 역량 자가진단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되며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오프라인 센터 안내 및 사용 예약도 가능하다. 셋째는 종합 중소기업 정책정보 온라인 플랫폼을 추구하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이 있다. 기업마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운영하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정보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전국의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29개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등이 오프라인에서 운영되며 중소기

업 정책들이 현장에 전달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닿지 않는 중소기업 정보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 주요 정책의 존재 여부 혹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거나 찾아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정책정보 인지도 설문조사(2020.7월)에 의하면, 관련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 공급 경로의 다양성, 이원화 등으로 애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0%에 달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처·기관·부서별 사업이 운영 주체 및 목적에 따라 산재되어 중소기업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을 검색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선 온라인 정보 플랫폼(기업금융나들목, K-startup, 기업마당 등)을 통해 지원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중앙부처의 사업을 포괄하지 못하고, 특히 지자체별 운영 사업까지 고려하면 그 역시 통합 정보는 아니어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온라인 정책정보 플랫폼이 창업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 제조 중소기업에는 정보 전달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이 지난 10년간 창업 기업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관련 정책정보 전달체계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창업 지원과 같이 정책

이 부족한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보 통합 노력 필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표적 중소기업 정책정보 온라인 플랫폼인 기업마당을 전면 개편했다. 기업마당은 여러 기관에서 지원 중인 다양한 정책정보를 2006년 7월부터 제공해 왔지만, "맞춤형 정책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년 5월 중소기업·지원기관 담당자 등 3,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편했다. 개편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효율화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개편해 수요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타 부처와 지자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보 등을 통합하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이 지난 60년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지만, 선진국으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클 것이다. 이제 5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창업 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더욱 다양하게 기획될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좋은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100% 인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통합·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모른다

53.5%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정책정보
온라인 플랫폼

기업금융나들목
www.smef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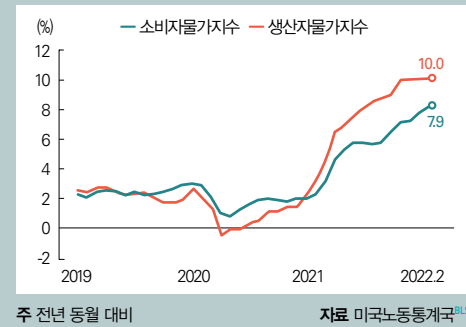
K-Startup
www.k-startup.go.kr

기업마당
www.bizinfo.go.kr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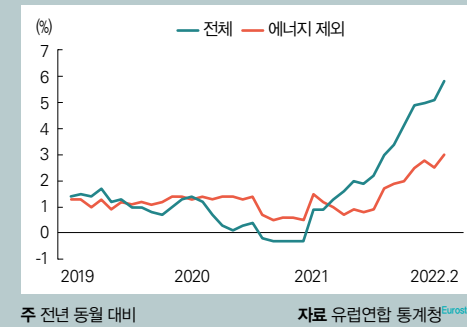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상승 압력이 심화되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지만, 견조한 고용 시장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를 유지

2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7.9%, 10.0% 상승했으며, 소비자물가가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는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연내 6회 추가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신규 고용은 67.8만 명 증가, 실업률은 3.8%, 경제활동참가율도 62.3%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고용 시장이 개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고, 소매판매도 0.3% 증가하면서 증가 폭은 전월 대비 다소 감소되었지만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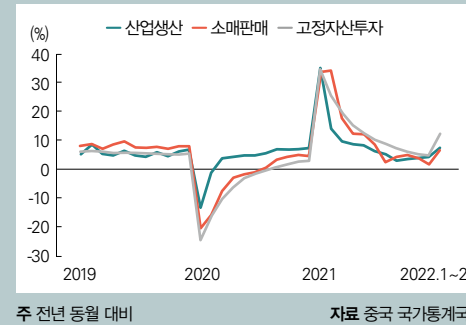
유럽중앙은행 ECB,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매파로 전환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ECB는 지난 3월 1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당초 예상보다 빠른 3분기에 양적완화를 종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유로스톡스50 주가지수가 당일 3% 이상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기준금리는 0%로 동결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연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ECB는 금리 인상은 양적완화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urozone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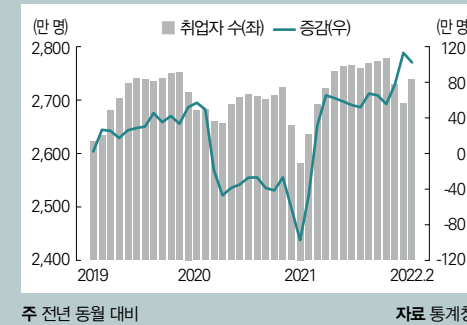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



1~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정부 부양책 효과 등으로 반등

1~2월 산업생산은 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로 석탄 생산이 증가하며 광업(9.8%)이 크게 늘었고, 그동안 반도체 부족 등으로 부진했던 자동차 산업(7.2%)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부진을 지속했던 소매판매도 석유류(25.6%)와 가전제품(12.7%)을 중심으로 6.7% 늘어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및 부동산 규제 완화로 늘어난 인프라투자(8.1%)와 부동산투자(3.7%)로 인해 고정자산투자가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하며 반등했다.

고용



고용은 뚜렷한 회복세, 물가 부담 압력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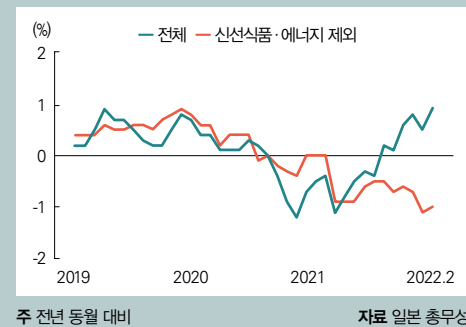
2월 취업자 수는 2,740.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7만 명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되어 온 숙박음식업(+5.5만 명)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3.9만 명)가 3개월 연속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고,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 역시 3.2% 상승하며 물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오름 폭은 축소(6.3→1.6%, 전동비)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의 상승 폭 확대(16.4→19.4%) 및 외식 물가 상승에 의한 개인서비스의 오름 폭이 확대(3.9→4.3%)된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Japan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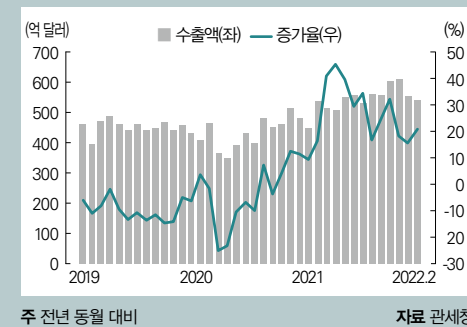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6개월째 상승

일본의 2022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급격히 상승한 원유 가격의 영향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15.3%)과 신선식품(10.1%)이 크게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이 원인이다. 다만,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0%에 그치며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4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경기 후퇴 우려로 기준금리 동결 등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달러·엔 환율은 120엔대를 기록하며, 엔화 가치가 6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수출



2월 수출액 최초 500억 달러 돌파하며 견조한 호조세 지속

2월 수출(539.1억 달러)은 역대 2월 수출액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했다. 반도체(23.4%), 석유제품(65.6%), 승용차(8.7%), 선박(17.5%)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자동차부품(-0.5%)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3월 1~20일까지의 수출은 승용차(-18.1%), 자동차부품(-9.1%)이 감소했으나 반도체(30.8%), 석유제품(79.0%), 무선통신기기(8.1%)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4% 증가했다.

Exchange Rate

원/달러 환율 동향



3월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상회하며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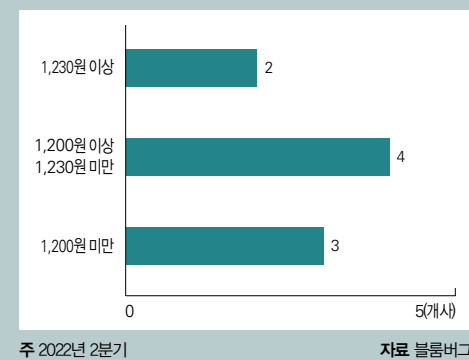
(2022.2.28일 1,202.7원—3.16일 1,241.7원—3.21일 1,211.1원)

3월 원/달러 환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우려로 1,240원대까지 상승했으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이후 2일 만에 30원이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4월 원/달러 환율도 변동성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4월 중에는 FOMC도 개최되지 않아 3월과 같은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화협상 결렬 가능성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불확실성도 여전함에 따라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요 IB 환율 전망



2022년 2분기 말 환율 전망은 1,213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9개사)의 2022년 2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213원으로 조사되었다. '1,200원 이상 1,230원 미만'으로 전망한 IB가 JP모건(1,215원) 등을 포함해 4개사로 가장 많았다. 최소값은 1,170원, 최대값은 1,255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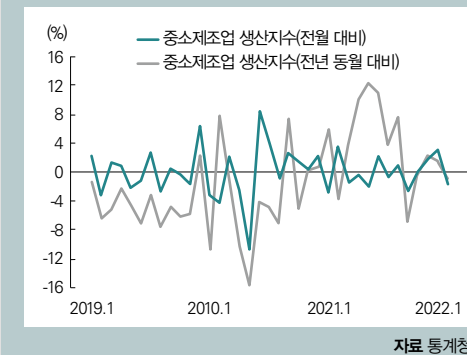
2022년 3분기 말 환율 전망은 1,201원

2022년 3분기 말 원/달러 환율에 대해 주요 IB들은 평균 1,201원으로 전망했다. 환율 전망치의 최소값은 1,160원, 최대값은 1,230원으로 나타났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2.2.28~3.18일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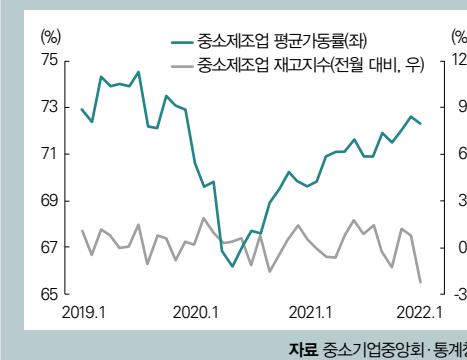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022년 1월 중소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는 1.6%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6.1%), 자동차(3.2%), 비금속광물(5.5%)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계장비(-3.2%), 통신·방송장비(-19.0%), 전기장비(-4.8%)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34.3%), 화학제품(3.8%), 의약품(11.8%)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9.3%), 금속가공(-11.8%), 통신·방송장비(-24.6%)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가동률, 전월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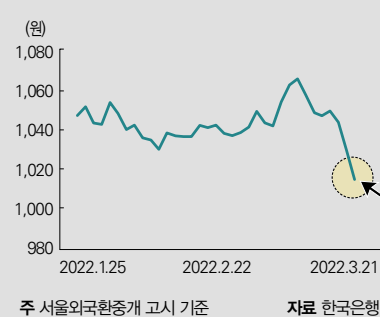
2022년 1월 중소기업 전체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하락한 72.3%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소기업(5~49인)은 보합했으며, 중기업(50~299인)은 0.6%포인트 하락했다.

재고, 전월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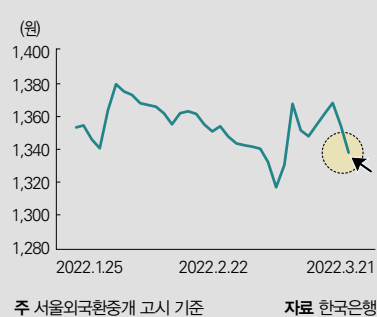
2022년 1월 중소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20.7%), 통신·방송장비(2.4%), 가죽 및 신발(6.1%) 등에서 증가했으나, 1차금속(-6.5%), 전기장비(-6.8%), 석유정제(-8.9%)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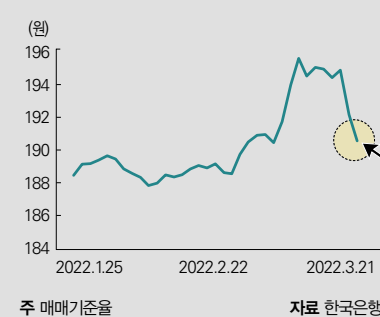
원/100엔 환율 동향



원/유로 환율 동향



원/위안 환율 동향



고용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2년 1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만 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31만5,000명,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67만5,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07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2년 1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이 증가해 547만 명을 기록했다.



그린산업 융합 미래형 혁신단지 창원산단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혁신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센터를 착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비상 채비 갖추는 기계 산업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50년 역사 기계 산업의 심장부인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산단)가 디지털 및 그린 요소를 접목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변신을 준비 중이다. 창원산단은 단순 생산·가공 중심 제조업을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해 첨단 고부가가치화할 계획이다.

창원산단이 비상 채비를 갖추고 있다. 방향은 디지털과 그린 기술을 접목해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다.

두산중공업, LG전자, 현대위아 등 대기업과 한국열처리, 태림산업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입주한 창원원은 한국 기계 산업의 심장부이며 약 50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국내 굴지의 산업단지다.

1973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창원엔 기계류 생산공장 집단이 들어섰다.

1974년 4월 이 일대가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5년 4월 적현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지 조성이 이뤄졌다.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재도약 채비

창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동률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12월 가동률이 86.4%로 수도권 대표 산업단지인 반월산단(77.3%), 시화산단(78.4%), 남동산단(80.2%), 구미산단(76.3%)에 비해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가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생산설비 노후화, R&D 투자 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창원산단을 지식 기반의 기계 산업 거점을 구축하는 구조 고도화 확산 단지, 2014년 혁신 대상 단지로 선정해 첨단·혁신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특히 2019년 2월 스마트산단을 선도할 프로

젝트 대상 단지로 선정된 뒤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 생산, 가공 중심이던 제조업이, R&D·ICT 융·복합을 통한 첨단 고부가가치화로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기존 산업단지에 스마트산단의 디지털과 그린(친환경) 요소를 접목한 개념으로 산단의 스마트화를 넘어 디지털, 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산학연 협업 프로젝트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방향은 제조업의 스마트화, 미래 먹거리 개발, 그린뉴딜 및 휴먼뉴딜(근로자 정주 및 작업환경 여건 등)이다. 이 중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제조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다. 여기엔 스마트팩토리 확산과 인공지능^{AI}·ICT 접목을 통한 공정 개선, 산단 기업들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팩토리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데이터 디지털화와 공정 프로세스 고도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맞춤형 제조시설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단 스마트화도 진행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스마트화(스마트공장)를 뛰어넘어 산업단지 전체를 스마트화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공정혁신 데모장비와 통합운영센터 등으로 구성된



단지 규모

25.7^{km²}

입주 기업

2,861개



업종별 입주 기업

기계 1,461개

전기전자 543개

운송장비 242개

철강 75개

상위 4개 업종 비중

81.2%



생산

41조7,301억 원
(2020년)

45조2,361억 원



수출

119억 달러



고용

12만104명

가동률

86.4%

주 2021년 12월 기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데모동'이 문을 열었다. 오는 4월 첨단 시생산 지원 라인, 첨단 시험장비, 스마트 공정 등의 설비가 들어갈 '시험동'이 완공될 예정이다.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은 IoT, AI, 디지털트윈 등 첨단 ICT와 제조 기술의 접목으로 기계, 항공, 방산 등 산단 내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및 공정 테스트를 지원해 가공시간 단축과 공정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거점 역할

창원산단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다. 이는 창원산단을 스마트그린화하는 것을 뛰어넘어 인근 산업단지로 창원의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창원산단(허브산단)은 인근의 김해골든루트·사천일만·함안철서산단을 스포크산단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육성 방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스마트, 혁신, 사람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이다. 마치 자전거가 바퀴 축(허브)의 동력을 바퀴살(스포크)로 전달해 굴러가듯 창원산단의 혁신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박민원 창원대 교수(전 경남창원스마트산단 사업단장)는 "창원은 국내 기계공업의 메카"라며 "ICT 대기업을 유치해 기존 제조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창원원은 스마트그린을 넘어 디지털 전환^{DX} 산업단지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 기업 원스톱 서비스 신흥글로벌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CKD, 포워딩, MRO, 수출 포장에서 제조 및 R&D까지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트레이딩 서비스 분야의 선두 기업

신흥글로벌

1946년 설립되어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신흥글로벌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반조립 제품 Complete Knock Down, CKD 사업, 포워딩, 기업 소모성 자재 공급 MRO, 수출 포장 사업 부문에 이르기까지 수출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출 기업이 완제품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물류, 포장, 자재, 구매대행 등을 돕고, R&D 및 제조까지 지원한다. CKD 사업은 부품을 그대로 수출해 목적지에서 조립한 뒤 완성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비즈니스다. 발주와 포장, 품질 검사, 선적 및 일정 관리까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CKD 방식이 자국의 공업화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출국은 완성품 수출보다 관세가 싸고 현지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류 기업이면서도 차별화된 R&D 전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신흥글로벌의 강점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R&D센터를 운영하며 세계 유수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설계, 시제품 제작, 신뢰성 시험을 바탕으로 한 전장, 회로, 기구 및 원·부자재의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자동차 조향장치부품 10여 개국에 수출하는 강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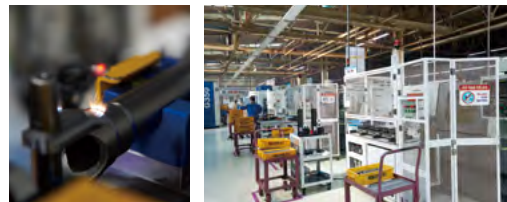
태림산업

1986년에 설립된 태림산업은 승용차 조향장치부품을 설계·생산해 글로벌 자동차 시스템 업체에 수출하는 강소기업이다. 창원과 중국 공장을 합쳐 200여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수출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할 만큼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도 탄탄하다.

태림산업의 주력 생산 제품은 조향장치부품인 '인터미디어트 샤프트'다. 2019년과 2020년 ZF*로부터 약 2,900억 원의 주문을 따냈다. 이들 물량은 수주 후 10년에 걸쳐 세계 각지로 수출하게 된다.

태림산업은 최근 스마트그린산단 프로젝트에 참여해 MDCG^{Manufacturing Data Community Ground}라는 '데이터센터 홍보관'을 구축했다. 지난해 11월에 완성된 홍보관은 중소기업도 제조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사례를 업계에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태림산업 공장 내부의 실제 생산라인과 연계해 전국 최초로 제조 데이터 활용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ZF 독일 남서부 프리드리히스하펜에 본사를 둔 ZF는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업체다.



인터미디어트 샤프트 태림산업의 부품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페라리, 폭스바겐, 피아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인 ZF로부터 10년간 2,900억 원어치 물량을 수주했다.



IBK기업은행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책



해내리대출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도 부족했던 자금 유동성이 더욱 경색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며,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책정된다. 운전자금은 최대 5년, 시설자금은 최대 15년 동안 활용할 수 있어 창원산단에 입주한 소기업들과 창원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산업 중심의 혁신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투자 지원 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및 품목 영위 기업, 제조업 혁신 분야 및 유망 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 그리고 '2021 혁신성장 공동 기준' 관련 혁신기술 및 품목 영위 기업이다.



세무·회계 컨설팅

기업의 세무·회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컨설팅 제도로, 기업승계, 법인전환, 세무 진단,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등의 세무 분야와 재무 진단, 원가 관리, 합병 분할, 외부감사 사전 진단, 기업공개 IPO 등과 관련한 회계 분야를 컨설팅한다. 진행은 기업 상황에 맞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모두 가능하다.

INTERVIEW



이수완 IBK기업은행 창원 지점장

통합 창원시 출범 전 창원에 처음으로 문을 연 창원 지점은 전체 거래 기업 수가 4,665개에 달할 정도로 폭넓은 기업의 금융서비스 기반을 자랑한다. 이러한 특성을 심분 활용

해 창원산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지점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회생 절차를 밟게 된 기업에 금융 지원을 진행해 경영 정상화에 일조하는 등 창원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력과 경쟁력이 충분하지만 기업 규모가 작아 대출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범열 IBK기업은행 창원중앙 지점장



창원중앙 지점은 기업금융지점으로 출발한 만큼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펼치고 있다. 창원산단과 인근 지역의 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각 기업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 지원이 가능한 것이 창원중앙 지점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실제로 얼마 전 창원에서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려는 한 기업의 공장부지 매입과 관련해 지자체 및 IBK의 관련 지원제도를 면밀하게 소개한 덕분에 해당 기업의 모든 금융 거래를 전담하게 된 사례도 있다. 전 지점장은 "지점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금융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비금융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모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공휴일의 민간 확대 적용에 따른 대처 방안

최근 관공서에만 적용되었던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도 그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은 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민간 확대를 적용받는 공휴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본다.

기존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일임을 전제로 주로 연차유급휴가를 일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공휴일은 더 이상 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러한 운용이 불가능하다.



1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해당 법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모두 시행되었다.



2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1.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2. 설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3. 위 1, 2의 공휴일이 토·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일요일, 임시공휴일 제외)과 겹칠 경우
4. 위 1, 2, 3의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1일 추가 부여
5. 이상의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별도 대체공휴일 부여



3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

앞에서 언급한 공휴일 중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바로 임시공휴일이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당연히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로, 보궐선거일과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주휴일과 공휴일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주휴일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



5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무조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등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과는 별개로 근로의 대가와 함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참고). 그렇다면 교대제 근로 등과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어쩔 수 없이 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는 '휴일대체'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참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했다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6 기존에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해 왔는데 더 이상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해 연차 개수를 차감하고 휴무를 시키는 제도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던 과거에는 공휴일도 근로 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기업들은 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고 쉬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많이 활용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해 쉬도록 할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현주 세무법인 세일 화성지점 대표세무사

전 IBK기업은행 기업지원 컨설팅부 수석세무사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을 1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다.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대손세액공제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 상대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미 해당 매출 등에 대해 법인세, 부가세 등을 납부했기 때문에 회수 불능이 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지난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법인(소독)세법'상 대손처리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사업자가 사업상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당좌수표, 대여금, 선급금 등을 여러 사유로 회수하지 못할 때는 대손상각으로 당기 비용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 한다.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될 때는 대손예상액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미 신고·납부한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상각 사유에 의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비교

대손금은 기업 회계기준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세법에서는 대손 사유 충족 시 손금처리를 하고, 대손 사유가 충족되지 않을 시 손금불산입을 한다. 대손충당금은 회계상 객관적인 손실의 증거가 있는 경우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데, 세법은 설정한 대손충당금 중 세법상 한도 내 대손충당금은 손금을 인정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다.

대손상각 관련 사례

-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직원과 그 보증인에 대해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에 의한 제번 절차를 취했

세법상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 사유

구분	강제대손(신고조정)	임의대손(결산조정)
조정	신고조정으로 사업자가 결산 시 손금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정만으로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 사유	결산조정으로 사업자가 결산 시 반드시 손금에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는 대손 사유
손금 시기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대손 사유가 발생해 법원에서 손실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대손 사유	①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이 확정된 채권 ③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권 ④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② 2020년 이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 ③ 채무자 파산, 강제 집행, 형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④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⑤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소액채권 ⑥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채권(2021.2.17일 이후부터 적용)
경정청구	신고조정 대손 사유로 발생한 대손금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결산조정 대손 사유로 발생한 대손금으로 법인 결산 시 회계상 처리하지 않아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불가능

*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경과했다라도 채무자의 재산 여부, 사업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계상 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처리 하고 그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급여, 배당 등) 한다.
- 거래처와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

대손 확정 시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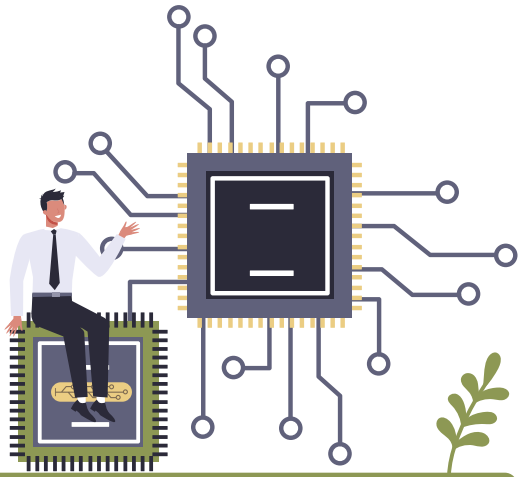
대손금 회수 시 공급자는 대손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변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가산한다.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대손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한다.

채권 요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채권
사유 요건	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기간 요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어야 함
신고 요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증명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진정한 선진국 되려면 기업가 정신 확산과 기술독립 필요

1993년 한국 최초로 반도체 **전공** 공정 제조장비 회사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한 황철주 대표는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오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국내 기업이 선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는 바로 기술독립과 기업가 정신, 지속 가능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필자가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한 건 1993년이다. 주성을 창업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나사 하나도 반도체 전 공정 장비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다. 이런 시대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전 공정 제조장비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기업을 창업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 온 지 어느새 30년이 되어 간다. 주력 생산제품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광발전 셀을 만드는 공정장비들이다. 구체적으로, 화학증착장치^{CVD & PE-CVD}, 원자층 증착장치^{ALD}, 드라이에처^{Dry Etcher},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치 등이다.

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하다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진다. 이는 어찌 보면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첫째, '기술독립'이다. 우리 회사 전면에는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국경일도 아닌데 무슨 태극기냐”고 묻곤 한다. 이에 필자는 직원들이 ‘기술독립’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365일 걸어 둔다고 설명한다. 이는 창업 이후 한시도 잊지 않은 정신이다.

21세기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터다. 핵심은 무역전쟁이자 기술전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면적의 0.07%고, 세계 인구의 0.7%다. 이 작은 국가가 갖고 있는 천연지하자원은 거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잘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기술혁신뿐이다. G2(미국·중국)의 갈등도 무역과 기술 주도권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창업 초기부터 이를 악물고 기술혁신에 매진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 때문이다. 덕분에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발전 산업 기술 분야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이 19건, 관련 보유 특허는 2,900건이 넘는다. 한국이 20년 이상 메모리 반도체 1등 생산 국가였기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의 경쟁력은 세계 순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둘째, '기업가 정신'이다. 좋은 일이 행복을 만들고, 그 좋은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다. 행복의 조건들은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핵심 조건 세 가지를 말한다면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환경의 자유가 아닌가 한다. 행복을 위한 조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기술의 혁신이다. 경제적 여유가 선행될 때 시간적 여유가 가능하고,

경제와 시간적 여유가 가능할 때 환경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빛의 속도로 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적 여유는 기술의 혁신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지식으로 돈을 만들 수 없는 시대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혁명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10초면 모든 지식과 통계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술은 지식에 오감을 더한 결과고, 혁신은 기술에 영감을 더한 결과다. ‘혁신, 1등, 성공’은 리스크와 시간과 속도의 변수를 극복한 결과다. 이는 기업이 정신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셋째, 시스템 구축이다. 시스템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없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고, 협력 가능한 시스템이 성장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성장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우리는 더 잘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간다. 성장과 행복은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빛의 속도에 대응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좋은 파트너와의 지속 가능한 분업적 협력이다. 파트너는 생각하는 철학이 같고, 추구하는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는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일이 기술의 혁신이고, 그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리더와 기업가들이다. 리더와 기업가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다.

이는 기득권과 고정관념이 없는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하면 1등이고, 늦게 하면 2등이다. 많이 알고, 좋은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더 잘하기 위해서다. 먼저 잘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분업적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황철주 대표이사·회장

1959년생. 경북 고령의 빈농 집안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업고등학교 전자과, 섬유공장 근로자, 인하공업전문대학을 거쳐 인하대 전자공학 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기업과 외국 기업 등을 거쳐 1993년에 한국 최초로 반도체 전 공정 제조장비 회사인 주성엔지니어링을 우리 기술로 창업했다.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오고 있는데, 전체 임직원 500여 명 중 R&D 부문의 인력이 65%에 달할 정도로, 특히 R&D와 혁신을 중시한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일운과학기술재단 이사장, 공학한림원 이사 및 IP전략협의회 공동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위원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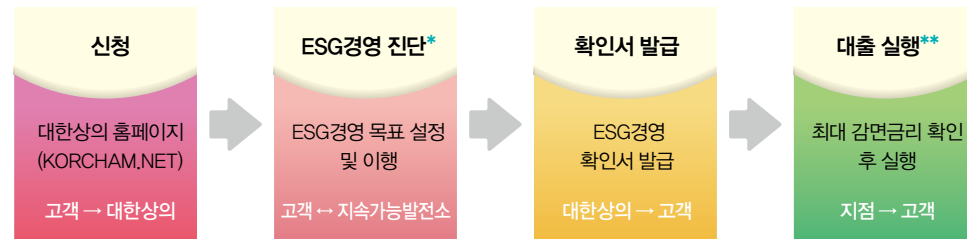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대표 기업이다. 경기도 광주에 본사를, 용인에 R&D센터를 두고 있다. 창업 이후 국내 기업 최초로 반도체 전 공정 장비를 수출했다. 세계 최초로 공간분할 원자층 증착장비^{ALD}를 개발하고 양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다.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ESG경영 확산을 위해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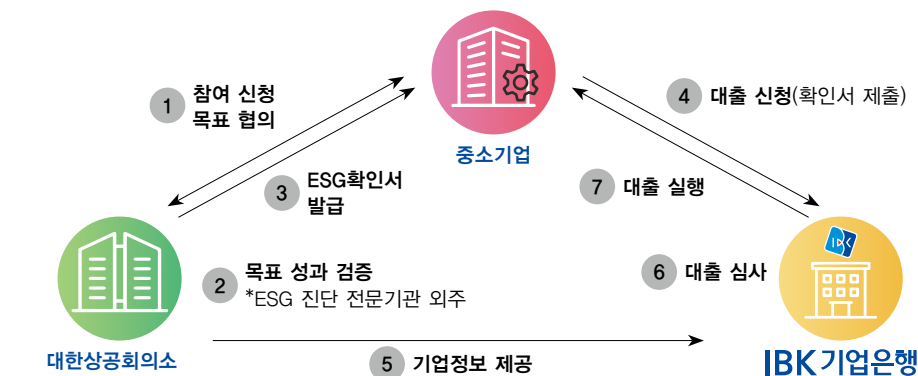


대출
지원 절차



*약 2~3주 소요, 신규 대출은 목표 설정 수준에 따라 ESG경영 확인서 등급 결정

** ESG경영 확인서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 여신심사 후 대출 실행



※ ESG 확인서 발급 기준
(대출 신청) ESG 목표 적정성, (대출 연장) 목표 이행 성과



주요 내용

- 지원 규모 2,000억 원
- 자금 용도 운전자금
- 우대 내용
- (금리 감면) ESG경영 확인서(대한상의 발급) 등급에 따라 최대 1.0%p

구 분	최우수	우수	양호
최대 감면금리	1.0%	0.5%	0.3%

○ 비금융서비스

제공 서비스	담당부서
ESG경영 진단 및 컨설팅	IBK컨설팅센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배달 손님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포스기를 놓고 간 날에는
손님들도 불편하고
저도 기름값 두 배로 들고
참 난감하죠.

근데 IBK BOX POS를 다운받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은 늘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내 폰을 POS기로

요즘 사장님을 위한 모바일 POS
IBK BOX POS



POS 모드

메뉴 관리, 테이블 주문 관리 등
일반 POS 기능이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매출 입금확인

가게 매출이 카드사에 정상 매입되었는지,
대금 입금일은 언제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모드

금액 입력 후 결제할 카드나 스마트폰을
사장님 스마트폰 가까이 대면 결제 완료



일간 재무리포트

일별로, 시간대별로, 메뉴별로
판매현황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별점은 1점만 주세요

별점 신경 쓸 시간에 맛에 더 집중하려고요

사연을 듣고 책을 판매합니다

사연에 맞는 책으로 위로해주고 싶어요

이 옷은 꼭! 다 떨어질 때까지 입으세요

유행을 안 타는데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나만의 철학이 주목받는 시대로- 세상을 바꾸는 가게들

×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200만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